

전북 농식품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선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전북자치도, 전북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제1차 총괄위원회 가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24일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제1차 총괄위원회를 열고 기업 기술수요 기반 기술사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는 도내 혁신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등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총 13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괄위원회를 비롯해 혁신기획단, 자문위원회, 5개 분과로 구성된 농생명 산업 혁신과 기업·농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5년 제2기 출범 이후 기업 수요 중심으로 운영 방향을 전환해 애로기술 해결과 기술사업화 지원에 집중해 왔으며,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과 실증사업 발굴, 연구개발 연계를 추진해 왔다.

바이오진흥원은 올해 전문경력 활동가를 추가로 운영해 기술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 수요 발굴부터 사업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24일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제1차 총괄위원회를 열고 기업 기술수요 기반 지원과 기술사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획,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 기술 애로는 전문가 연계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 과제는 컨설팅과 연구자 매칭을 통해 국제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과 기술사업화를 지속 지원해 전북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

겠다"고 밝혔다. 이은미 원장은 "혁신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현장의 기술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체질 개선으로 신뢰 회복 추진

전북지역 새마을금고, 경영정상화 박차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전북지역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5%대로 낮아지고 손실 규모도 감소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일부 금고의 당기순손실도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여건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지역 새마을금고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중심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경·공매를 적극 추진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힘써왔다.

그 결과 연체율은 전년 말 8.95%에서 5%대로 하락했으며, 부실채권 축소와 손익관리 강화로 당기순손실 규모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 역시 7% 수준을 유지해 감독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지급여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전북지역 새마을금고는 올해에도 부실채권 정리와 우량 여신 확대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비용 절감과 비이자수익 확대 등 수익성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관계자는 "전북지역 59개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교통안전 이모티콘 공모전' 개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길통이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이모티콘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3월 23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이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 보조장치(ACC) 위험성을 공통으로 하고, 졸음 운전 예방, 전 좌석 안전띠 착용, 2차

사고 예방, 과속운전 금지,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등 5개 주제 중 하나를 추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참가자는 정지형 이모티콘과 모션형 이모티콘 각 1개씩 총 2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16건의 우수작을 선정해 2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북 전주 본부에서 '2026년 전국 지사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장 워크숍 가져

경영방침 공유 · 현장 소통 강화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3일부터 24일 까지 이틀간 전북 전주 본부에서 '2026년 전국 지사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공단 임원과 본부 부서장, 전국 지사장 등 141명이 참석해 새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김성주 이사장의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지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사장이 직접 지사장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이 운

영대 의미를 더했다.

공단은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제시하고, 책임·공감·상생·선도를 4대 핵심가치로 설정했다. 이는 국민 노후를 책임지고 국민 삶에 공감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워크숍 첫날에는 김성주 이사장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지사가 묻고, 이사장이 답하다' 프로그램에서는 정책 및 사업 방

향, 제도 개선, 조직 운영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청렴문화 확산과 안전 경영 강화를 위한 실천 결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렴 선포식을 통해 실천 의지를 다졌으며, 안전·보건 결의대회를 통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뜻을 모았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전국 지사장들과 국민연금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공기관평가 '정책소통 적극행정 부문' 우수대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평가 우수대상'에서 정책소통·적극행정 부문 우수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공공기관평가우수대상 조직위원회와 이종배, 정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해 정책소통과 정보공개, 적극행정 등 분야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 생생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등 공공서비스 혁신 노력을 인정받았다.

박규순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은 임직원 모두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투명하고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개발공사, 'ESG경영' 본격 추진

전북개발공사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2026년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 분야에 걸쳐 9개 전략과제와 3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공사의 핵심 사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ESG경영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와 녹색건축 기반 조성이 추진된다. 공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 단지에 제로 에너지 및 녹색건축 인증을 도입해 친환경 건설 기반을 강화한다.

사회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복지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가산업단지 및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참여, 관광단지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료 감면 정책을 지속 운영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농촌 일손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ESG 경영성과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 경영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